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빌 6번지

## 이재명, 민주 20대 대선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두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최종득표율 50.29%... 이낙연, 3차 선거인단서 압승 정세균·김두관 무효표 처리... '턱걸이' 본선행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이 지사는 이날 최종 득표율 50.29%(71만9805표)로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에 성공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경선에서 3차 국민·일반 당원 선거인단 투표(3차 선거인단), 광주·전남, 재외국민 투표를 제외한 모든 승부처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최종 득표율 39.14%(56만392표)로 결선 투표행에 실패했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9.01%(12만9035표)로 3위를, 박용진 의원이 1.55%(2만2281표)로 4위를 기록했다. 전체 선거인단은 216만9511명, 유효 투표수는 143만3992명(투표율 67.30%)이다.

이 지사는 3차 선거인단 표심이 이전 대표에게 쏠리면서 가까스로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그의 전날 경기 지역 경선까지 누적 득표율은 55.29%에 달했지만 3차 선거인단 완패로 최종 득표율은 50.29%로 하락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표를 무효 처리하지 않았으면 이 지사의 최종 득표율은 50% 미만으로 본선 직행은 불가능했다. 불만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 전 대표 측이 그간 당 지도부에 무효표 처리 재고를 요청해온 것을 고려하면 이번 투표 결과는 승영길 대표

의 지도력에 흠집이 날 공산이 크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SK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이후 발표된 3차 선거인단 온라인·ARS투표 집계 결과에서 유효 투표수 24만8880표 중 7만441표(28.30%)를 얻는데 그쳤다.

반면 이 전 대표는 득표율 62.37%(15만5220표)로 막판 뒷심을 발휘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우려가 막판 이전 대표에게 물꼬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추 전 법무부 장관은 8.21%(2만435표)로 3위를, 박 의원은 1.12%(2784표)로 4위를 차지했다.

3차 선거인단과 함께 발표된 서울 지역 경선에서는 대의원·권리당원·국민일반당원 온라인·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 이 지사가 8만8883표 가운데 4만5737표(득표율 51.4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 전 대표는 전체 3만2445표(36.50%)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이 8813표(9.91%), 박 의원이 1898표(2.14%)를 차지해 각각 3위, 4위에 올랐다.

재외 국민 투표에서는 이 전 대표가 유효 투표수 4323표 가운데 55.59%인 2403표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 지사 31.69%(1370표), 추 전 장관 12.51%(541표), 박 의원 0.21%(9표) 등 순이었다. /뉴시스



전북도가 2021년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및 산업평화 대상 시상식을 지난 8일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6곳과 산업평화 대상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 노·사 모두 행복한 일터로 탄탄한 전북경제 조성

### 도, 산업평화 모범사업장·대상 시상식 가져 모범사업장 휴비스 등 6곳·대상 3명 수상

전북도가 2021년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및 산업평화 대상 시상식을 지난 8일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6곳과 산업평화 대상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에는 ▲대기업 부문에 (주)휴비스 전주공장, ▲중견기업 부문에 (주)나리자 전주공장, (주)푸르밀 전주공장, ▲중소기업 부문에 웨미리시프(주) 전주공장, 영진물류(주) 평안정공주 등 총 6개 사업장이 선정됐다.

산업평화 대상은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수여하는 상

으로, (주)에스비티 양건석 가장, 전국 건설산업노조전북지부 김덕봉 사무국장, NH전북농협지역본부 박병철 노조위원장 등 3명이 선정됐다.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에는 총 6천만 원의 노사화합 프로그램 사업비가 지원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힘든 시기에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보여준 것에 대해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가 확산돼 전북경제가 더 튼튼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및 대상은 공모와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2007년 처음 시행된 이래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했다. /유호상 기자

## '건축! 문화로 시대 열다' ... 전북 건축문화제 19일 개막

### 24일까지 소리문화전당과 온·오프 개최 한옥모형 기획전시·문화재 복원 영상 상영

전북도가 (사)전북도건축문화진흥연합회와 공동으로, 우리 도의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해 대내외에 알리고 미래의 건축 인재 육성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건축! 문화로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제2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전북도 건축문화제'는 대면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오프라인 전시(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와 온라인 전시(www.baf.or.kr)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건축문화제 전시에는 전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수상작, 한·중·일 건축사들의 우수작품, 한옥모형 기획전시, 서울시 건축문화제 특별교류전, 공공건축 특별전, 건축드로잉 작품 등이 전시되며, 문화재 복원과정을 담은 영상도 상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전북도 건축문화상을 접수한 결과, 사용승인?학생?건축사진 부문 등 총 7개 분야에 89점

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일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 영예의 수상작 21점과 장려상 등 19점을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전북대학교 소승영 교수는 "분야별로 접수한 작품들에 대해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 아

름다운 건축물 확산, 천년의 숨겨진 미래의 건축문화를 이끌어 갈 건축인 발굴에 주안점을 두고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용승인부문(공공분야) 대상에는 건축사사무소 건축무한 유영옥 건축사가 설계한 전주 새솔 유치원'이 선정됐다. '전주 새솔 유치원'은 전주시 덕진구 예로스티 인근에 위치해 대지의 흐름에 순응하고, 외부공간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스의 형성과, 건축물도 둘러싸

인 중정 그리고 대지의 레벨차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2층 미당 등으로 다양한 공간적 체험이 가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사용승인부문인 일반분야 대상에는 담 건축사사무소 김종양 건축사가 설계한 카페 캔버스'가 선정됐다. 카페 캔버스는 완주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개발원 인근에 위치해, 흰색의 벽체와 과감하게 비워둔 추상적인 보이드 공간이 마치 그림을 그리기 위한 캔버스와 같이 주변을 비추고 반사하여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부문 대상에는 원광대학교 박

지혜 학생이 출품한 '흔적은 거리를 통해서가 선정됐는데, 심사에서 전주 웨딩거리의 역사적 가치와 유적해야 할 경관을 찾고, 회복해 거리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계획으로, 이상적인 재생의 개념을 제안하며 노력한 점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건축사진부문 금상에는 정서운 작가의 '송림사 보광전의 아름다움'이 선정됐는데, 익산시 송포면에 위치하고 있는 송림사 보광전의 주변 건물과 건물사이의 처마곡선을 아름답게 살려 보광전의 건축미를 표현한 점이 돋보인다는 의견을 들었다. /유호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 좀 더 낮게, 좀 더 가까이!

민생을 살피고, 군민에게 좀 더 낮게·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주군의의회  
MUJU-GUN COUNCIL